

대학은 필수인가?

이름: ???

- ① 한글로 글을 작성할 경우, 양쪽 정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오타 및 띄어쓰기 등 글을 쓰는 데 있어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야 함.
- ③ 인용한 부분에 대한 각주가 없음. 표절.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함.
- ④ 또한 참고문헌도 정리되어 있지 않음. 교재 5장을 반드시 참고하여 형식에 부합하는 에세이로 재구성할 것.
- 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본론에서 제시되어야 할 핵심 논증이 전혀 없음. 본론의 두 번째 장인 '2-2 대학은 꼭 필요한가'에서 핵심 논증이 제시되어야 함.
- ⑥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의 교육 제도와 사회진출 경로 등을 참고하여 더 세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개진해야 함. 내용 보강.

1. 서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제도에 대해 혈안이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을 하기 위한 더 빠른 길이 열린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벌주의가 매우 심한데,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도 학벌을 통해 1차적으로 지원자들을 거른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엄청난 학벌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끼리 그룹을 이뤄서 서로의 성공에 도움을 주고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든든한 지원군들이 되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다. 본인이 진정 능력이 부족한데도 대학을 잘가서 학벌주의의 세상 속에서 한 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

해서 말이다.

2. 본론

2-1) 대학의 본질

대학은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을 더 심화해서 배우기 위한 최종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본인이 전공할 학문을 정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배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본질은 현재 변질되고 있다. 기존에 순수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하는 생각 자체는 사라지고 대학은 그저 취업을 위한 하나의 센터가 되어 대학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문을 공부하기 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공대, 경영학 등이 성행하고 이 외 학과들은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2) 대학은 꼭 필요할까? -> 핵심 논증이 구성되어야 할 장.

사실, 필자는 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라면 마이스터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경제 활동이 학문 활동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마이스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취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를 뒤흔든 천재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했다. 그리고 그가 나온 대학교의 전공은 그가 한 일과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변혁한 천재가 되었다. 이처럼, 대학이 무의미하다는 예시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우리가 대학을 가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하나로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3. 결론

대학을 다니는 행위는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과도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비싼 대학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지 않는 수업들이 대부분이거나 대학을 대체할 여러 학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대학이 취업 목적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의 본질을 다시 되찾고 자신들이 사회 내에서 할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역시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고졸이라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름없는 대학을 나오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일의 예시처럼 대학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적 시선들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이 선택사항을 사회적으로 강제처럼 묵인하게 된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항이며 이 개선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사회로의 도달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